

대통령 당선인 신년사 (신문용)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
계사년 새해 아침을 맞아, 대통령 당선인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.
여러분 모두, 새해에 꿈꾸고 계신 일 잘 이루시고,
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.

이제 약 두 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.
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새 정부에 걸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,
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

비록 지금은 세계경제가 힘들고,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,
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나라입니다.
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노력한다면,
지금의 이 어려움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
국민행복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

이를 위해, 저는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두고
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%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
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습니다.

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고,
가장들이 안심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며,
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께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,
기회의 사다리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, 공존과 상생의 정신을 되살려서
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발전하고,
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무엇보다 서로 믿고, 신뢰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겠습니다.
저부터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실천하면서,
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,
그 토대 위에,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
국민 대통합의 새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.

국민 여러분, 비록 올 해 힘들더라도 희망만은 잃지 말아 주십시오.
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 주십시오.
노력하면 꿈을 이뤄가고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실 수 있도록,
저와 새 정부가 힘을 다해 지원하고 돕겠습니다.

우리 모두가 체온을 나누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,
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
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.